

## 2009년 해외직접투자금액 전년대비 15.1% 감소

- 자원개발 광업투자 호조 속 제조업 투자 부진

- 한국수출입은행([www.koreaexim.go.kr](http://www.koreaexim.go.kr), 은행장 김동수) 해외경제연구소는 2월 18일 우리나라의 2009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, 대기업 중심의 자원개발 광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.
- 해외경제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“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”에 따르면 최근 세계 경기침체 및 투자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5.1% 감소한 194.5억달러, 신설 법인수는 38.3% 감소한 2,48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같은 감소율은 전 세계 해외투자 감소율('08년 1.7조달러에서 '09년 1.0조달러로 38.7% 감소, UNCTAD 추정치)보다는 낮은 수준이며, 분기별로는 2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4/4분기에는 연간 총투자의 47.1%가 이루어지는 등 회복세를 시현 중이다.
-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해외 자원개발 투자증가로 광업이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한 반면, 전통적으로 최대 투자업종이었던 제조업 투자는 2년 연속 감소하며 투자 비중이 하락하였다.
- 지역별로는 전년도 최대투자지역이었던 아시아는 전년대비 45.2% 감소하였으나, 북미는 광업을 중심으로 13.0% 증가, 유럽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61.5% 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.
- 대기업 투자는 0.9% 감소에 그친 반면, 중소기업 투자는 44.4% 감소하였으며, 특히 M&A, 해외자원개발, 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띄며,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.

- 해외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'08년 기준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1,916억달러\*의 수출이 이루어졌고, 한국인 2만명 외에도 현지국가에 총 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밝혔다.

\* 주요 업종별 수출액(억달러) : 도소매업 716.2, 제조업 449.3, 운수업 53.5

- 해외투자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반면,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금액이 대기업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, 고용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,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고용 유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,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 등에 대한 대출과 채무보증 등 다양한 여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'09년도에 3조 9,7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'10년에는 5조 2,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.

붙임: 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

문	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반장 김종호(☎02-3779-6684)
의	홍보실 공보팀장 신유근 (☎02-3779-6065)

<붙임>

## 2009년 해외직접투자 동향

□ 2009년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194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.1% 감소

- 신규법인 건수는 2,488건으로 전년대비 38.3% 감소
- ※ 2009년 신고금액은 304.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.2% 감소

○ 아시아,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전체투자 감소를 주도

-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, 업종별로는 광업 투자 증가

○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 대형화

- 1억 달러 초과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46.1% 차지

### '09년도 주요 특징

○ '03년 이후 지속된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중단

- 경기침체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 영향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도 감소세로 전환

- 전세계 해외투자 감소세('08년 1.7조달러에서 '09년 1.0조달러로 38.7% 감소, UNCTAD 추정치)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은 수준
- **분기별로는 '09년 2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**
  -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투자는 '09. 2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후 4/4분기 중 연간금액 총투자의 47.1%가 이루어지는 등 회복세 시현
- **아시아 지역,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**
  - 전통적으로 최대 투자 대상이었던 아시아 지역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며 전체 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.
- **해외 자원개발 투자 증가로 광업이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**
  - 석유공사, 광물공사, 한전, 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활기를 띠며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
- **M&A, 해외자원개발, 부동산 투자 등으로 투자규모가 대형화**
  - 신규법인 건수 감소폭이 비교적 큰 편이나, 대규모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투자규모 대형화 추세가 지속
  - \* 대규모 투자(1억불 초과) 비중(%) : '07년 39.0 → '08년 39.3 → '09년 46.8

## 지역별 동향

- **아시아에 대한 투자액 감소가 전체 투자 감소를 주도**
  - 투자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45.2% 감소한 63.5억 달러를 기록하며, 투자 비중 감소 추세 지속
  - \* 아시아 투자액(억달러) : '07년 109.9 → '08년 115.9 → '09년 63.5
- **유럽, 북미에 대한 투자액 및 투자비중 확대**
  - 유럽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61.5% 증가, 북미는 광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3.0% 증가

- 중국, 미국 앞 투자는 감소한 반면 캐나다, 영국 앞 투자는 증가
  - 최근 5개년간 투자상위국 1, 2위를 차지했던 미국과 중국은 전년대비 각각 30.6%, 44.5% 감소, 캐나다와 영국은 1,365.7%, 788.8% 급증
  - \* 투자상위 5개국(억달러): 미국 (35.5), 캐나다 (24.2), 중국(20.8), 영국(16.8), 홍콩(15.7)

## 업종별 동향

- 최대 투자업종이었던 제조업은 2년 연속 투자 감소
  - 제조업 투자는 전년대비 35.0% 감소한 44.6억원을 기록하였으며, 투자 비중은 전년도 29.9%에서 금년에는 22.9%로 하락
  - \* 제조업 투자액(억달러) : '07년 81.0 → '08년 68.6 → '09년 44.6
- 해외 자원개발 투자 증가하며, 광업이 최대 투자업종 차지
  - 광업 투자는 50.9억불로 전년대비 42.2% 증가, 투자비중이 15.6%에서 26.2%로 증가하며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
- 부동산업 투자 증가, 이외 대부분 업종에서 투자 감소
  - 국민연금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증가에 힘입어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전년대비 38.1% 증가
  - \* 기타 업종 증감률 : 도소매업 50.9% 감소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.9% 감소, 금융 및 보험업 22.6% 감소, 운수업 20.7% 증가

## 기 타

-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전년대비 0.9% 감소에 그쳤으나,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44.4% 감소
  - 대기업 투자비중 81.1%, 중소기업 투자비중 17.2%
- M&A형 해외투자는 51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.6% 감소, 신설 법인수는 344건으로 37.8% 감소
  - 전 세계 국경간 M&A 감소세(전년도 7,065억달러에서 2,399억달러로 66.0% 감소, UNCTAD 추정치)보다는 낮은 감소율

## 시 사 점

-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아시아지역 비중이 4사분기에는 3위로 하락하였는 바, 향후 추세를 계속 지켜볼 필요
-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M&A가 계속 활발해 질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최근 부동산투자(국민연금)가 크게 늘고 있는 것 주목

- 전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활기를 띠는 추세이며, 중소기업형 제조업 투자는 퇴조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는 수출 증대면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자동차나 조선 등 제조업의 경우는 공동화 우려

#### <해외투자 수출입 및 고용 효과>

- '08년의 경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은 관계회사 앞 수출(판매 현지법인 포함)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1,916억달러(전체 수출액의 약 45.6% 규모)의 수출기여를 가져 왔고, 한국인 고용인원은 2만명 수준(현지국가에 총 1백만명의 고용 창출)
  - 현지법인과 거래를 통한 수출 유발효과는 220% 수준이며, 대기업은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부(-)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기록
  - 반면,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금액이 대기업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, 고용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고용 유발효과가 더 높음.
- 해외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감이 있으나, 정책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지속되어야 하며, 당행의 자원 개발 또는 M&A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 지원 필요

#### 주요국 해외직접투자액 및 GDP 비중('08년말 기준)

(단위: 10억불, %)

자료 : UNCTAD, 2009